

2017년 10월 13일

투자전략 Daily

• 경제분석

매크로 포커스: 3분기 국내 GDP 깜짝 성장

• 중화권 증시 동향

보험주의 강세 속에 홍콩H 연중 최고치 경신

• 전일 시장 특징주 및 테마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한솔케미칼 외 5개 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이엠텍 외 5개 종목

• 산업/기업분석

통신서비스, 반도체, KTH,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현대제철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캘린더

전략 총괄 | 노근환
투자 전략 | 박소연
시황 분석 | 김대준
계량 분석 | 안혁
스몰캡 전략 | 정훈석
해외주식 | 백찬규
중국시장 | 최설화
신흥국/원자재 | 서태종
글로벌기업 | 정희석
자산배분전략 | 정현종
경제 분석 | 박정우
채권 분석 | 오창섭
크레딧 | 김기명

주요 증시 지표 및 주체별 거래 동향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9/28(목)	9/29(금)	10/10(화)	10/11(수)	10/12(목)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2,373.14	2,394.47	2,433.81	2,458.16	2,474.76	
	등락폭	0.57	21.33	39.34	24.35	16.60	
	등락종목	상승(상한)	515(1)	610(1)	364(0)	513(0)	452(0)
		하락(하한)	296(0)	187(0)	450(0)	281(0)	330(0)
	ADR	69.59	73.39	78.17	83.85	87.98	
	이격도	10 일	99.18	100.03	101.61	102.45	102.87
		20 일	100.10	100.92	102.36	103.10	103.46
	투자심리	30	30	30	40	50	
	거래량	(백만 주)	195	182	222	202	255
	거래대금	(십억 원)	4,713	4,539	7,508	6,086	6,223
코스닥	코스닥지수	648.09	652.82	654.59	662.31	666.54	
	등락폭	-1.15	4.73	1.77	7.72	4.23	
	등락종목	상승(상한)	684(1)	833(0)	416(0)	828(2)	559(2)
		하락(하한)	431(1)	325(0)	737(0)	305(0)	583(0)
	ADR	70.79	72.62	76.05	82.22	81.86	
	이격도	10 일	98.47	99.47	100.06	101.43	102.10
		20 일	98.57	99.36	99.60	100.67	101.21
	투자심리	40	40	40	50	60	
	거래량	(백만 주)	583	686	554	558	552
	거래대금	(십억 원)	2,825	3,121	2,832	2,980	3,416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유가증권	매수	2,593.7	1,898.5	1,550.7	659.8	102.9	152.1	112.3	14.9	508.7	91.5
	매도	2,643.3	1,662.4	1,769.1	715.7	107.0	197.2	119.6	16.6	613.0	59.6
	순매수	-49.6	236.1	-218.4	-55.9	-4.1	-45.0	-7.3	-1.7	-104.3	31.9
	10월 누계	-306.2	1,754.4	-1,314.3	-636.6	-42.7	-106.9	34.3	-25.4	-536.9	-134.0
	17년 누계	-5,815.7	6,953.0	-4,721.6	5,788.0	-1,624.7	-3,089.5	-85.5	-735.7	-4,974.2	3,584.3
코스닥	매수	2,990.5	269.5	147.0	62.0	12.4	19.5	29.2	2.3	21.6	21.5
	매도	2,902.7	298.4	204.5	56.9	14.4	41.0	27.0	0.9	64.3	22.9
	순매수	87.7	-28.8	-57.5	5.1	-2.0	-21.5	2.2	1.4	-42.6	-1.4
	10월 누계	47.4	63.7	-99.4	1.0	-3.9	-31.8	-2.2	1.9	-64.3	-11.7
	17년 누계	2,760.1	2,058.4	-3,543.5	-916.5	-323.7	-769.1	-478.8	-119.8	-935.7	-1,275.1

매크로 포커스: 3분기 국내 GDP 깜짝 성장

2017년 Target KOSPI	2,600pt
12MF PER	9.71배
12MF PBR	1.02배
Yield Gap	8.4%p

- ▶ 3분기 국내 GDP 전년비 3.0% 성장하며 시장 예상치 상회 할 것으로 기대
- ▶ 수출과 설비투자가 이끌고 소비 회복이 가시화되며 경기회복에 대한 자신감 상승
- ▶ 안정적 성장국면에 진입하며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시그널 확인 될 것

■ 3분기 국내 경제 전년비 3.0% 성장, 수출이 끌고 내수가 밀고

3분기 국내경제는 전년비 3.0%를 기록하며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할 전망이다. 수출과 설비투자가 이끌면서 소비 회복도 가시화되어 경기회복에 대한 자신감은 더욱 탄력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7~8월까지 발표된 지표로 봤을 때 3분기 국내경제는 2분기 대비 뚜렷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GDP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전산업생산은 7~8월 평균 4.9% YoY를 기록, 2분기 평균 3.1% YoY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무역수지 또한 7~9월 306억 달러를 기록, 2분기 291억 달러보다 높은 수준이다. 수출이 이끌면서 설비투자 또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을 것으로 판단된다. 7~8월 설비투자 증가율은 19.2% YoY (2Q 17.6%)로 높은 증가율을 이어갔다.

하반기 국내경기에서 가장 핵심은 소비회복 여부라고 할 수 있다. 이미 9월 자동차 판매가 큰 폭으로 회복되었고 추석의 장기간 연휴로 인해 소비지출은 매우 활발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작년의 기저효과까지 감안한다면 소비 증가율은 전년비 기준으로 시장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국내 소비 회복세는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국내 소매판매는 2분기 1.7% YoY에서 7~8월 평균 2.1% YoY를 기록, 국내 소비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7~9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9.6을 기록 2분기 106.7보다 높은 수준이다. 국내 소비에 대한 설명력이 높은 소비지출 전망의 경우 3분기 108을 기록 2분기 107보다 1pt 높아졌다. 통상 국내 소비지출전망 1pt 상승할 때 국내 민간소비가 0.2%p 증가하는 관계를 보면 3분기 국내 소비지출은 2분기보다 큰 폭으로 개선되었을 것이다.

물론 모두 좋은 것은 아니다. 2015년 이후 국내경기를 이끌어온 건설투자 둔화조짐은 3분기 들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건설기성금액은 7~8월 10.7% YoY 증가했으나 2분기 14.1% YoY에 비하면 하락세가 뚜렷하다. 건설투자는 전년비 기준으로 한 자리대 초반으로 증가율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표 1〉 국내 7,8월 주요 경제지표 발표 현황

(단위: % YoY, % QoQ)

	7~8월 평균	2분기
국내 전산업생산 (%YoY)	4.9	3.1
무역수지 (억 달러) (*)	306.0	291.0
설비투자 (% YoY)	19.2	17.6
소매판매 (% YoY)	2.1	1.7
소비지출전망 (pt) (*)	108.0	107.0
건설기성금액 (% YoY)	10.7	14.1

참고: 무역수지는 7~9월 합계, 소비지출 전망은 7~9월 평균
 자료: CEIC,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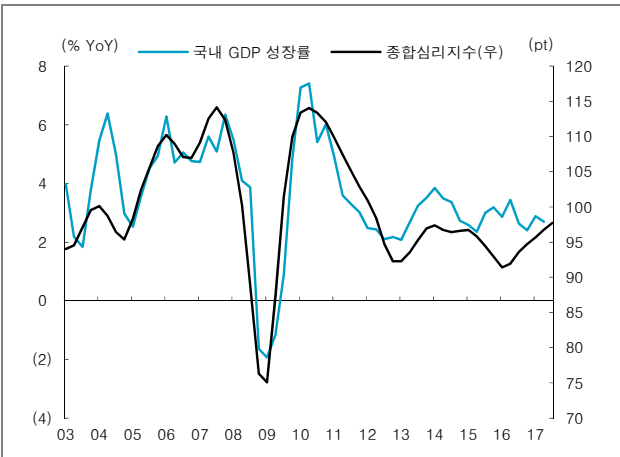
■ 소비회복에 따른 안정성장 국면진입과 통화정책 정상화

연간 2.5~3.0%의 안정적 성장국면은 주식시장에 매우 우호적인 환경이다. 2012~2015년 사이 과도한 비관론으로 국내 주식시장 리스크 프리미엄이 매우 높아졌었다. 다행히 올해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정상화되면서 국내 소비 역시 살아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특히 가계 순자산이 회복되면서 연말부터는 자산효과도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여건이 도래하고 있다. 물론 현재 시점에서 소비회복 속도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겠지만 방향성은 분명히 위쪽이다.

수출과 투자의 높은 변동성에 의존한 경제성장은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해외경기에 대한 의존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비의 정상화가 뒤따르면 경기의 지속성이 높아진다. 물론 아직까지 국내 소비 증가율이 전체 성장률을 상회하는 시기는 아니다. 다만 소비와 전체 성장간의 격차가 줄어들 경우는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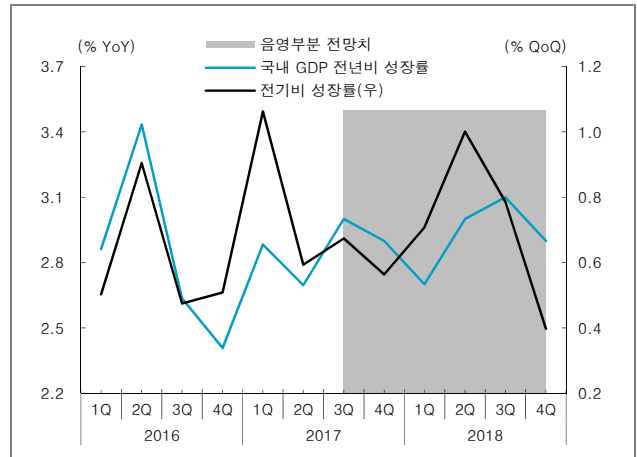
이러한 측면에서 성장의 내용으로 보면 올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국내경제는 안정적인 성장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잠재성장률이 하강하는 과정에서 표출되었던 과도한 비관론도 설 자리를 잃어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통화당국의 입장에서는 저금리 기조가 불편할 수 있다. 경기가 정상화되면서 수반되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미국의 통화정책이 정상화되는 경로와 속도를 염두에 두면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의견을 조심스럽게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연내 금리 인상은 가능하지 않겠지만 준비하라는 신호는 줄 것이다. 이번 3분기 성장률이 갖는 의미다.

[그림 1] 국내 GDP 성장률과 종합심리지수



자료: CEIC, 한국투자증권

[그림 2] 국내 성장률 전망 경로



자료: CEIC, 한국투자증권

■ Global Economic Data Preview (10/16~20)

26일 한국 GDP 발표를 앞두고 다음주 19일에는 중국 3분기 GDP를 비롯해 주요 실물지표 발표가 예정되어있다. 상반기 대비 부진한 실물지표 흐름으로 미루어 2분기 6.9% YoY를 소폭 하회 할 전망이지만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예정된 미국 광공업생산과 주택 착공 및 허가건수는 견조한 수요회복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리케인의 영향이 반영되며 큰 폭의 반등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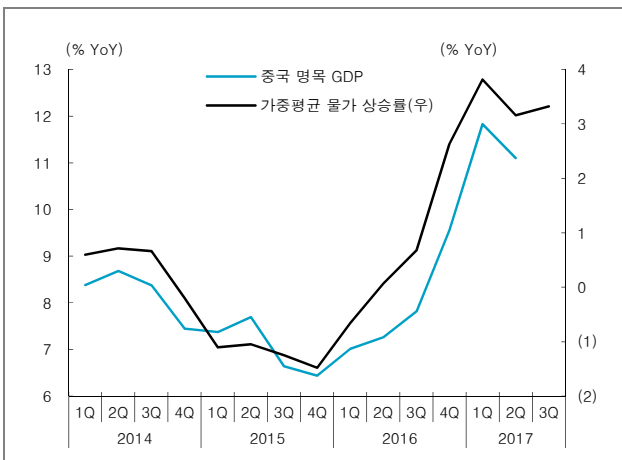
■ 3분기 중국 GDP(10/19), 부진한 경기 흐름 반영하며 성장률 소폭 둔화

3분기 중국 GDP는 상반기 대비 다소 부진한 6.7% YoY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을 하회할 전망이다(2분기 6.9% YoY, 시장 예상치 6.8% YoY). 7, 8월 소비와 투자 등 실물지표의 부진이 가시화되기 시작했으며 하반기부터 지속된 위안화 강세 부담으로 수출 역시 기대치를 하회했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 하방 리스크가 높아지는 가운데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는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이를 반영한 실질 GDP 성장률은 예상을 다소 하회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생산법을 통해 산출되는 중국 분기 GDP 특성을 고려했을 때 7, 8월 평균 6.2% YoY였던 산업생산 증가율(상반기 평균 6.9% YoY)은 3분기 GDP 하락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통상 분기 말 지표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계절성을 고려하더라도 앞선 분기 대비 증가율 둔화가 불가피하다. 특히 환경보호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는 기조가 9월에도 이어지며 뚜렷한 생산 반등이 기대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 밖에 2016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부동산 제한 정책의 영향이 7월부터 주택 가격 및 부동산 투자 증가율 둔화로 확인되고 있어 고정자산투자 부진 역시 성장률 하방 리스크를 높이는 요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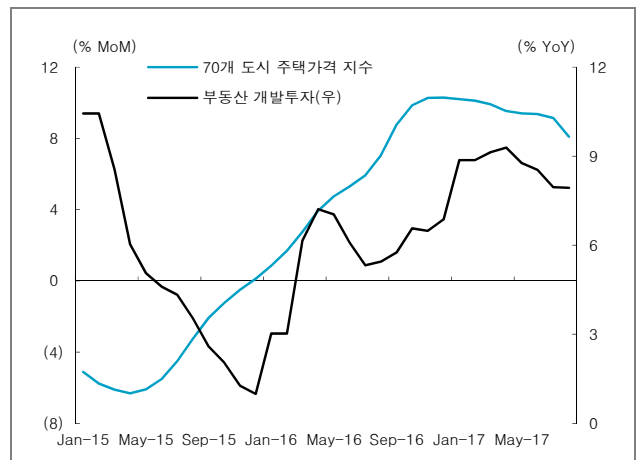
다만, 상반기 대비 둔화된 중국 경제성장률은 이미 시장에서 인식하고 있던 부분이라는 점에서 충격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특히 하반기 확인된 실물지표의 부진은 수요 위축보다 정부의 부동산 및 환경규제에 따른 공급측 충격이 컸기 때문에 추후 급격한 둔화 가능성 역시 제한적이라는 판단이다. 또한 10월 18일 19대 당대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시진핑 2기 출범을 앞두고 금융시장을 비롯한 실물경기 안정화를 위한 정부 노력이 예상된다. 따라서 2017년 전체적으로 상고하자 흐름이 유지되는 가운데 하반기 급격한 경기 하방 리스크는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 중국 명목 GDP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추이



자료: CEIC, 한국투자증권

[그림 4] 중국 주택 가격 및 부동산 개발투자 증가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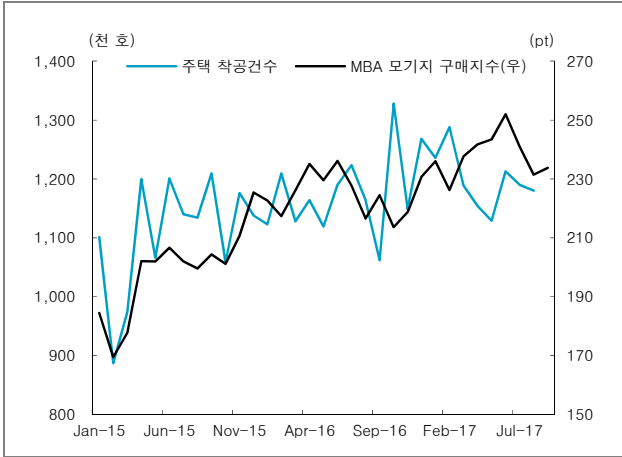
자료: CEIC, 한국투자증권

■ 9월 미국 주택착공(10/18), 2개월 연속 부진에서 반등

9월 주택 착공 건수는 2개월 연속 부진에서 반등한 120.0만 호를 예상한다(8월 118.0만 호, 시장 예상치 118.0만 호). 먼저 주택수요 측면에서 9월 FOMC에서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기조가 재차 확인됐음에도 모기지 금리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MBA 구매지수도 최근 2개월 연속 하락추세에서 9월 소폭 반등에 성공하며 견조한 수요를 지지하고 있다. 높은 주택수요를 보이는 25~44세 고용증가율도 9월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다. 다소 부진했던 9월 고용환경을 고려하면 주택 수요를 자극하는 긍정적 요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상반기 정체되어 있던 임금상승률이 3개월 연속 상승폭을 확대하며 9월 2.9% YoY를 기록하는 등 미국 수요개선이 가시화되는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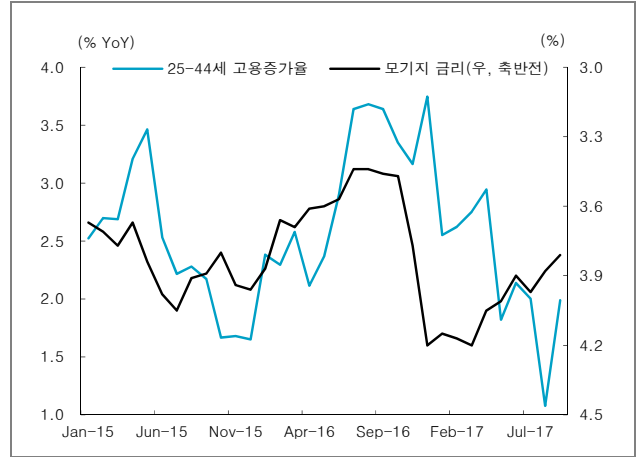
견조한 수요와는 다르게 공급측면에서는 다소 조심스런 흐름이 관찰되고 있다. 미국 남서부지역은 전체 주택착공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지역을 강타한 허리케인 하비의 영향력이 9월 본격적으로 반영될 전망이다. 이에 건설업체의 공급심리를 반영하는 NAHB 주택공급자 심리지수가 9월 64pt로 하락했다. 세부항목인 판매현황과 향후 6개월간 예상판매 등 모두 전월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이후 최고수준까지 상승한 신규주택의 재고물량 역시 주택착공의 서프라이즈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다. 따라서 다소 위축된 공급측 심리 상태를 고려했을 때 9월 미국 주택착공 건수는 시장 예상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그림 5] 미국 주택착공건수와 NAHB 주택 공급자 심리지수



자료: CEIC, 한국투자증권

[그림 6] 25 ~ 44세 고용증가율과 30년 만기 모기지금리 추이



자료: CEIC, 한국투자증권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자료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제시된 증목들은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또는 계량화된 모델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보험주의 강세 속에 홍콩H 연중 최고치 경신

- ▶ 상해종합지수는 약보합 마감, 다음주 예정된 당대회와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 확대
- ▶ 홍콩H지수는 0.8% 상승, 최근 조정 받던 보험주가 일제히 상승하며 지수 상승 견인

■ 중국 시장

상해종합지수 약보합 마감, 석탄, 양조, 비철금속, 부동산, 증권 등의 업종 약세

상해종합지수는 3,386p로 약보합세로 마감했고, 연휴 이후 처음으로 약세를 보였다. 거래대금은 2,017억위안으로 직전일 대비 12.7% 감소했다. 오후 들어 하락폭이 확대됐던 시장은 마감직전 매수세가 유입되며 하락폭이 축소됐다. 신규 상승 모멘텀 부재했던 가운데 다음주 예정된 19대 1중전회와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확대됐다. 일부 시크리컬 업종과 증권 업종을 중심으로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된 것도 주식시장의 약세를 견인했다. 다만 보험, 국방, 5G 관련주가 반등하면서 지수의 하락폭을 제한했다. 차스닥 지수는 통신, 빅데이터 관련주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신소재주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약보합 마감했다. 한편 최근 대규모 매수세를 보인 외국인들은 금일 후구통을 통해 상해주식을 4.6억위안 순매도한 반면 심천주식은 선구통을 통해 8.2억위안 순 매수했다.

■ 홍콩 시장

홍콩H지수 0.8% 상승, 보험, 소비재, 소재, 통신 등의 업종 강세

홍콩H지수는 0.8% 상승한 11,500p 로 마감하며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직전일 미국증시 상승 마감에 동조하며 강세로 출발한 주식시장은 장중 상승폭이 확대됐다. 신화보험(1336.HK)가 6% 넘게 급등하는 등 최근 약세를 보였던 보험주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업종별로는 소비재, 금융, 소재, 통신 등이 상승했다. 한편 직전일 하락했던 부동산주의 강세 전환 속에 항셱지수는 0.2% 상승한 28,459p 로 마감했다. 한편 홍콩증시와 본토증시의 엇갈린 흐름 속에 A/H 프리미엄지수는 전일 대비 0.6% 하락한 127.7p로 마감했다.

◆ 중국 주요 금융지표 추이

(단위: p, %)

구 분	10/12 (목)	전일 대비(%)	5거래일 전 대비(%)	1개월 전 대비(%)	연초 대비(%)
상해종합	3,386.10	-0.06	1.39	0.20	9.10
심천종합	2,023.36	-0.15	2.46	1.87	2.75
차스닥	1,899.99	-0.08	2.44	0.82	-3.16
홍콩H	11,500.34	0.78	0.91	2.30	22.41
Shibor 7일물 금리(% , %p)	2.89	-1.32	-2.73	2.94	13.49
Shibor 1개월 금리(% , %p)	4.05	-0.02	-0.44	2.94	22.54
중국국채 3년물(% , %p)	3.67	0.65	1.60	1.20	21.19
위안/달러 고시환율	6.5808	-0.05	-0.85	0.81	-5.13
역내 위안/달러	6.5865	0.06	1.01	-0.78	5.44
역외 위안/달러	6.5825	-0.13	1.09	-0.71	5.98

주: 12일 오후 6시 1분 기준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외국인과 연기금 매수가 지속되며 코스피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

- 뉴욕증시는 미국 경제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에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일제히 상승 마감. 2,460P선을 돌파하며 출발한 코스피는 외국인과 연기금이 나흘 연속 동반 순매수세를 이어가며 2,470P선 돌파에 성공,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이틀 연속 신고가를 경신. 코스닥도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에도 불구하고 개인 매수에 힘입어 나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감
-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보면, 3분기 실적 및 신사업 기대감 등으로 카카오가 나흘 연속 상승하며 신고가를 경신했으며, 미 FDA로부터 제2공장에서 생산한 의약품의 제조 승인을 획득하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0% 가까운 강세 속 신고가를 경신.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 관련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현대산업을 비롯해 건설주가 강세를 보였으며, 정부가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 육성 계획을 밝히며 로봇,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임. 또한, 정체마진 효과로 3분기 실적 호조 기대감에 SK이노이션을 비롯해 정유주의 강세가 두드러졌으며,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며 증시 활황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에 증권주가 강세를 보임. 반면, 3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할 것이라는 전망에 메디톡스가 급락했으며, TV패널 점유율 하락에 따른 실적부진 전망에 LG디스플레이가 5% 이상 급락세를 보임

종목/테마	내용
카카오(035720) ▶159,500 (+5.98%)	3분기 실적 기대감에 신고가 경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분기 실적 기대감 및 카카오게임즈와 카카오뱅크 등 자회사들의 성장 기대감에 신고가 경신 - 또한, 삼성전자와 함께 카카오톡 및 인공지능(AI) 플랫폼 카카오프라이프를 삼성전자 생활 가전제품에 연동, 스마트 가전 서비스를 함께 구현하는 것을 골자로 한 MOU 체결 소식도 호재로 작용
SK이노베이션(096770) ▶210,000 (+3.70%)	3분기 실적 기대감에 신고가 경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적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허리케인 '하비' 여파로 석유화학 제품의 공급이 감소하고 국제유가가 상승함에 따라 실적 개선 기대감에 신고가 경신 - 아울러, 화학사업 자회사인 SK종합화학을 통해 미국 석유화학기업인 다우의 폴리염화비닐리덴 사업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도 긍정적으로 작용
증권주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에 동반 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최근 글로벌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국내 증시도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이틀 연속 경신하며 증시 활황 기대감에 강세 - 한국금융지주(071050, +7.99%), SK증권(001510, +6.41%), NH투자증권(005940, +6.14%), 삼성증권(016360, +5.72%), KTB투자증권(030210, +5.39%) 등 강세

참고: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로, 추천 종목과는 별개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52주 신고가 및 상한가

종목	내용
SK(034730) ▶303,000 (+2.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 자회사들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 3분기 지배주주 순이익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에 신고가 경신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377,500 (+8.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제2공장에서 생산한 의약품의 제조 승인을 획득했다는 소식에 신고가 경신

단기 유망종목: 한솔케미칼 외 5개 종목

(단위: 원, %)

종 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투자 포인트
한솔케미칼 (014680)	75,000 (+4.5)	71,800 (9/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용 과산화수소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3분기 매출액은 1분기 수준까지 회복될 전망 - 국내 공장이 100%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초부터 신규 설비가 가동되며 매출액 증가 전망 - 금년 초부터 공급되기 시작한 DPT(Double Patterning Tech) 소재의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으며 자회사인 테이팩스의 전자재료 사업도 신제품 공급으로 성장폭이 확대될 전망
포스코강판 (058430)	30,950 (+4.6)	29,600 (9/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P(World Premium) 제품 확대를 통한 제품믹스 개선 전망 - 3분기 중국 컬러강판 가격이 크게 상승해 하반기 실적 개선 예상 - 2분기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 매력이 여전히 높고 높은 배당 성향으로 투자 매력 상존
신성델타테크 (065350)	4,150 (-2.5)	4,255 (8/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방업체인 LG전자의 건조기 판매 급증과 더불어 세탁기, 청소기 등 프리미엄 가전제품 판매 호조에 힘입어 HA사업부의 성장 모멘텀 지속 전망 - 전기차 시장 확대에 배터리 부품 및 ESS부품 매출의 구조적 증가 예상 - 구조조정으로 인한 일회성 비용 반영이 종료되며 순이익이 지난해 대비 가파른 개선세를 보일 전망
아이콘트롤스 (039570)	26,100 (-3.3)	27,000 (8/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 입주량 증가에 따른 스마트홈 사업부 매출 증가 기대 -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른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사업부의 사업성 부각 전망 - 안정적인 캡티브마켓, 계열사 지분가치, 스마트홈 및 지능형 빌딩 산업의 성장성 등을 감안할 때 상대적 - 저평가 매력 부각 가능성 상존
이엘피 (063760)	24,600 (-10.4)	27,450 (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진율이 높은 중국 매출 비중이 지난해 30%에서 올해 50%까지 확대되며 수익성 향상 전망 - 본사 이전을 통해 2019년까지 법인세가 100% 감면되며 무차입 경영을 추구하여 재무건전성 우수 - 2017년 예상 PER 7.6배로 디스플레이 장비주 평균 PER 10.2배 대비 저평가 매력 부각
코엘패션 (033290)	5,670 (+36.1)	4,165 (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기반의 SPA 브랜드 전략을 통해 원가 경쟁력 확보와 추가 라이선스 브랜드 확대 가능 - 신규 런칭한 브랜드들이 안정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했고 기존 언더웨어 및 스포츠웨어 사업부도 견조한 성장 전망 - '17년 예상 PER 9.2배로 해외진출 및 사업영역 다각화를 통한 성장 가능성 대비 저평가 구간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제시된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무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당사는 2017년 8월 8일 현재 이엘피 발행주식의 자사주매매(신탁포함) 위탁 증권사입니다

중장기 유망종목: 이엠텍 외 5개 종목

(단위: 원, %, 십억 원, 배)

종 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2017년 추정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이엠텍 (091120)	15,400 (+9.2)	14,100 (7/20)	256	21	15	1,060	1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유일의 BA(Balanced Amature)스피커 생산 업체로 스피커 활용기술 발전에 따른 수혜 전망 - 지난해 베트남 공장 증설과 자동화 설비 확대를 통한 생산성 확대와 인건비 절감 예상 - 갤럭시노트8과 V30 출시로 하반기 마이크로스피커와 리시버 관련 매출 증가 전망 				
KG ETS (151860)	4,265 (+1.1)	4,220 (7/5)	125	20	15	428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팀 판가와 동 가격이 동반 상승으로 수익성 개선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 조성 - 국내 주요 FPCB업체들의 증설로 인한 전자소재 사업부의 실적 턴어라운드 전망 - 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지정 폐기물 비중 상승으로 환경 사업부의 수혜 전망 				
SK (034730)	303,000 (+8.2)	280,000 (5/29)	92,094	6,175	6,025	39,396	7.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주주환원정책과 재벌기업 지배구조개선 정책에 따른 수혜 전망 -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자회사들의 실적 상향 추세 지속 전망 - 실트론 인수를 통한 자회사 간 시너지와 탈석탄 발전정책에 따른 반사이익 전망 				
풍산 (103140)	55,300 (+35.5)	40,800 (5/23)	2,970	279	190	6,766	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인프라 투자 확대로 구리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 전망 - 풍산 주가의 저평가 요인인 Roll margin(가공이익)이 과거 3~4%에서 올해 1분기 7%까지 상승하며 주가 할인 요인 제거 - 현재 주가는 2017년 예상 실적 기준 PER 6.0배, PBR 0.8배(ROE 14.4%)로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이지바이오 (035810)	6,070 (-7.9)	6,590 (5/17)	1,438	99	41	754	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계 및 돈육 시세 강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성수기 진입에 따라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호실적 달성이 가능할 전망 - 올해 당사의 자회사인 옵티팜 상장에 따른 공모자금 유입으로 재무구조 개선 기대 - 6월 하림그룹의 지주사인 제일홀딩스의 코스닥 상장에 따라 당사의 주가가 재조명될 가능성 존재 				
오텍 (067170)	9,250 (-18.5)	11,350 (4/6)	828	37	17	1,288	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대 최대치인 전국 입주 아파트 가구 수와 미세먼지 우려 등으로 기능성 에어컨 설치 및 교체 수요 증가 전망 - 2018년 페럴림픽 참가 선수를 위한 장애인용 버스 및 택시 부족으로 정부의 관련 투자 확대 가능성 - 작년 4월 인수한 오텍오티스 파킹시스템의 안정적인 매출 성장이 가능하며 향후 오텍케어 통합빌딩관리 서비스(BIS)와 시너지 효과 기대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SK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통신서비스: 8월 이동통신 시장 - 데이터 이용량 전년동월대비 28.2% 급증

■ 8월 이동통신은 데이터 이용량 증가 지속, 마케팅 경쟁 완화

8월 이동통신 시장은 긍정적인 추세가 이어졌다. 1) 데이터 이용량 급증 지속, 2) 사물인터넷 위주의 성장세, 3) 경쟁 완화 등 추세가 강화됐다. LG유플러스와 KT는 점유율이 상승한 반면 SK텔레콤은 하락했다.

■ 1. 4G 가입자당 데이터 이용량은 6.9GB로 51,000 요금제 기본 데이터 상회

8월 LTE 가입자당 데이터 이용량이 6.9GB로 전년동월대비 28.2% 늘어 급증세를 이어갔다. 데이터 이용량 6.9GB는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요금 59,900원, 기본 제공량 11GB)보다 한 단계 낮은 51,000원 요금제의 제공량 6.5GB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2분기 가입자 평균 요금이 34,902원인 점을 감안하면 데이터 이용량 증가가 데이터 부가 서비스(데이터 추가 구매) 및 요금제 상향으로 이어질 것이다.

■ 2. 사물인터넷 위주 성장으로 마케팅비용 절감

8월 이동통신 가입자는 6,201만명으로 전월대비 0.3%, 전년동월대비 4.1% 늘었다. 가입자수가 18.5만명 늘어 가입자 성장세가 이어졌다. 순증 가입자 구성을 보면 자사 가입자 비중은 18.8%로 낮은 반면 사물인터넷과 알뜰폰 가입자 비중은 81.2%로 높았다. 8월은 자사 휴대폰 가입자 유치가 줄어 마케팅비용이 절감됐다. 8월 사물인터넷(이동통신 기준) 가입자수는 621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3.8% 늘었으며 보급률이 10%로 높아졌다.

■ 3. 단말기 판매량은 약정할인을 상향 앞두고 전월대비 13.9% 감소

8월 이통 3사(알뜰폰 제외) 단말기 판매량(개통 가입자수)은 166만대로 전월대비 13.9%, 전년동월대비 16.4% 줄었다. 9월 15일 약정할인을 상향을 앞두고 단말기 판매가 지연됐기 때문이다. 개통 가입자 중 기기변경 가입자 비중이 43.2%로 높았다.

■ KT와 LG유플러스 점유율은 상승, SK텔레콤은 하락

이통 3사 모두 가입자는 증가 추세이나 전략은 달랐다. SK텔레콤과 KT는 사물인터넷과 알뜰폰 가입자 유치에 주력해 자사 휴대폰 가입자 유치가 미미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요금이 비싼 자사 휴대폰 가입자 위주로 성장했다. 가입자 점유율은 SK텔레콤은 하락세를 지속한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상승세를 지속했다.

■ 규제 리스크 해소 필요, SKT는 자회사 가치 급증으로 매력 높아

3분기 통신 3사 영업이익은 마케팅비용 증가로 전분기대비 9.1% 감소할 전망이다. 9월 요금할인을 상향에 이어 18년에 취약계층 요금감면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 10월 국정감사에서 보편요금제와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 통신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규제 관련 불확실성 축소가 관건이다. SK텔레콤은 자회사의 가치 급증과 배당 메리트 투자 매력도 높다.

*상기 보고서는 2017년 10월 11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반도체: 서버를 제외한 메모리 채용량 둔화 지속

■ 디램 가격상승 지속으로 서버를 제외한 채용량 둔화 지속

3분기 디램익스체인지가 발표한 주요 application별 디램가격 상승률은 모바일 2%, PC 5%였지만 실제 가격상승폭은 더 컸던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가격과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모바일디램의 가격상승폭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가격 상승으로 서버를 제외한 나머지 application의 디램 채용량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지난 2분기 서버 디램 채용량 증가율은 44%로 지난 3Q16 이후 40% 수준을 지속적으로 상회해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스마트폰의 모바일디램 채용량 증가율은 22%로 4Q16 73% 고점 이후 빠르게 낮아지고 있고 PC디램도 1Q17 26%에서 2Q17 21%로 낮아졌다.

■ 완제품 수요 부진 지속으로 디램수요는 앞으로도 채용량 증가에 좌우

2분기 전세계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율은 6%에 그쳤다. 3분기 증가율 전망도 4.6%로 개선은 없을 전망이다. 3분기 PC수요는 3.6% 감소했고, LCD TV 출하량은 7~8월 4.8%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서버 출하량 증가율은 2분기 2.4% 감소에서 3분기 3.2%로 회복될 전망이지만 출하량 전망치는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완제품 수요가 부진을 지속하고 있어 디램수요는 앞으로도 당분간 채용량 증가가 대부분일 수 밖에 없다.

■ 서버디램 채용량 강세 지속

지난 2분기 서버디램의 채용량 증가율은 44%로 3Q16 이후 40% 이상을 유지하면서 강세를 지속했다. 이 같은 서버 디램 채용량 증가율 강세는 전세계 데이터트래픽의 높은 증가율에 기인한다. 2016년 데이터트래픽 증가율이 32%로 전년의 21% 대비 크게 높아지면서 서버디램 채용량 증가율을 2015년 20%에서 2016년 36%로 끌어올렸다. 2017년 서버디램 채용량 증가율도 38%로 높게 예상되고 이를 상회할 가능성도 있지만 과거 서버디램 채용량 증가율의 변동성이 데이터트래픽 증가율 변동에 따라 크게 나타났던 점을 비추어 보면 2018년 서버디램의 채용량 증가율의 하락 가능성이 높다.

■ 나머지 주요 application의 채용량 증가세 둔화

2분기 서버디램 채용량 증가율은 예상보다 강했던 반면 모바일디램과 PC디램의 채용량 증가율은 하락 추세를 지속하거나 하락 반전했다. 모바일디램의 경우 2분기 채용량 증가율이 28%로 지난 4Q16 80% 고점 이후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PC디램 채용량 증가율도 1Q17 26%에서 2Q17 21%로 하락 반전했다. 디램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완제품 업체들의 원가부담이 높아져 채용량 증가세 둔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재고변동이 큰 PC의 경우 2분기를 고점으로 3분기부터 재고증가세 둔화가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PC디램의 채용량 증가율 둔화세가 예상된다.

■ 모바일용 낸드 채용량 증가율도 하락 중

지난 2분기 스마트폰 낸드 채용량 증가율은 74%로 디램과 마찬가지로 지난 4Q16 128% 이후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 디램과 낸드 모두 가격상승과 채용량 증가로 원가부담이 높아져 스마트폰업체들의 수익성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가격강세가 지속되는 동안 채용량 증가율 둔화도 지속될 수 밖에 없다. 반면 4Q16 1.6%까지 낮아졌던 SSD의 채용량 증가율은 2분기 17%까지 높아졌다. SSD의 낸드수요 강세와 가격상승으로 모바일용 낸드수요 증가율이 둔화되는 모습이다.

■ 2018년 메모리 수요둔화 전망

서버디램 수요강세와 이로 인한 디램 전반적인 가격상승으로 디램 수요증가율은 2017년 23%에서 2018년 15%로 낮아질 전망이다. 디램 공급증가율은 공급업체들의 2018년에도 18%로 2017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낮은 정도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낸드의 경우 공급증가율 상승폭이 커 2017년 34%에서 2018년 42%로 높아질 전망이다. 반면 수요증가율은 2017년 43%에서 낮아져 낸드의 공급과잉 정도가 디램보다 심하게 나타날 것이다. 디램업황이 과거대비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지만 낸드업황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디램 및 낸드 공정전환으로 상대적으로 원가절감 능력이 좋은 삼성전자를 최선호주로 추천한다.

*상기 보고서는 2017년 10월 12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KTH(036030)

중립(유지)

종가(10/11): 5,470원

3Q17 Preview: 성장성 높으나 valuation도 높다

■ 3분기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27.1% 증가할 것이나 이익률은 낮을 것

3분기 매출은 크게 증가할 것이나 수익성이 낮을 전망이다. 3분기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27.1% 증가한 600억원으로 추정된다. 데이터 홈쇼핑 사업인 T커머스 매출이 58% 늘어 성장을 주도할 것이다. KT그룹의 ICT서비스 플랫폼 사업인 스마트솔루션 매출이 1.2% 늘고 영화 판권을 확보해 주문형비디오(VOD) 수익을 배분하는 콘텐츠 유통은 8.6% 증가할 전망이다. 영업이익은 14억원으로 24.9%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T커머스가 비용 증가로 적자를 지속하는 가운데 영업이익률이 2.3%에 그쳐 수익성은 부진할 것이다.

■ T커머스는 높은 성장 지속, TV App 및 기가지니 연동 서비스로 성장 모색

T커머스가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17년 국내 T커머스 거래액 규모는 1.8조원으로 전년대비 80% 증가할 전망이다. 국내 10개 T커머스 업체 중 12년 8월 최초로 사업을 시작한 KTH가 1위 업체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KTH의 17년, 18년 T커머스 매출액은 전년대비 각각 64.2%, 53% 증가할 것이다. 현재는 주문형비디오(VOD) 위주로 커머스 사업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TV App(TV에서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 리모콘을 통해 주문) 및 유통 플랫폼 확대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전망이다. TV App은 고사양 셋톱 증가에 따라 리모콘 주문율이 상승해 판매액이 지난 3년간 연평균 88% 증가했다. 한편 콘텐츠와 쇼핑이 결합된 웹드라마의 활성화 및 KT 인공지능(AI) 셋톱 기가지니와 연동한 대화형 커머스로 유통 플랫폼을 확대할 것이다. 기가지니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어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 투자 확대로 수익성 개선 지연

T커머스 사업 확충을 위해 대형 방송센터를 확보하고 전문인력을 늘려가고 있다. 7월 5일 목동에 대형(5,619m²) 자체 스튜디오를 개관해 다양한 상품, 규모가 큰 상품 전시가 가능해지며 수요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상품 구성도 용이할 것이다. MD(상품기획), PD, 쇼호스트 등 인력도 증가하고 있다. 성장성은 높아지나 사업 확장을 위한 비용 증가로 수익성 개선은 지연될 전망이다.

■ 중립의견 유지

KTH에 대해 중립의견을 유지한다. T커머스 매출 호조로 성장성은 매우 높으나 투자 확대로 수익성이 부진하다. Valuation이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TV App, KT 기가지니와의 연계 서비스 등 성과가 장기 성장성 및 수익성을 좌우하는 변수가 될 것이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DY (%)
2015A	161	5	7	203	(37.9)	30	44.5	8.0	1.6	3.7	-
2016A	199	6	4	120	(40.9)	31	54.5	5.1	1.2	2.1	-
2017F	246	5	4	108	(9.8)	34	50.6	3.6	1.0	1.9	-
2018F	317	10	7	208	91.7	44	26.3	2.6	0.9	3.6	-
2019F	395	18	14	381	83.6	56	14.4	1.9	0.9	6.5	-

*상기 보고서는 2017년 10월 11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한국가스공사(036460)

매수(유지)
목표가: 62,000원(유지)
종가(10/11): 41,400원

3Q17 Preview: 장기투자매력 여전

■ 3분기 영업손실 1,670억원 추정

3분기 매출액과 영업손실 규모를 각각 4.1조원, 1,670억원으로 추정한다.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8.5% 늘어날 것이고 영업손실 규모는 228억원 축소돼, 시장 컨센서스 영업손실 수준(1,407억원)을 소폭 하회할 전망이다. 매출액이 늘어나는 것은, 3분기 천연가스 판매량이 약 8.7% 감소했음에도, 판매단가(원료비연동제 시행 중, 원료비 단가 28.4% 상승)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가스공사의 고정적 비용(감가상각비, 인건비 등)은 매 분기마다 균등하게 발생하는데, 2~3분기에는 판매량이 줄어드는 비수기여서 매년 적자가 발생한다. 영업손실 규모가 축소되는 이유는, 국내 보장이익이 지난 5월 초 전년 대비 6.0% 늘어난 것으로 확정됐고, 해외 자원개발(E&P)에서 나오는 이익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 연말 GLNG 손상차손 우려 있어

장기 유가전망이 하향 조정되면서, 특히 호주 GLNG 프로젝트의 운영사인 Santos(지분 30%)가 지난 2분기에 6.9억 달러의 손상차손을 인식(장기 유가전망 낮춰)하면서, 가스공사(지분 15%)의 손상차손 우려가 커졌다. 올해 연말에 결정될 가중평균 유가는 94.89달러/배럴로 예상되며 작년에 가스공사가 적용한 100.72달러/배럴보다 5달러/배럴 낮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이를 적용하면 4분기에 인식될 GLNG 프로젝트의 손상차손 규모는 약 1,500~4,000억원 수준으로 가스공사의 내부 할인을 조정해 따라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극단적인 가정으로 내년에도 지금 수준의 유가가 지속된다면, 손상 인식이 반복될 수 있다. 다만 3개년 연속 장기 유가 전망치를 낮춘 만큼, 손상 규모는 점차 축소될 것이며 주가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해질 것이다. 참고로 지금까지 가스공사가 GLNG 프로젝트에 투자한 총 금액은 2.2조원이며, 2015~2016년 이미 5,188억원의 손상차손을 반영한 바 있어 현재 남아있는 자본금은 1.4조원이다.

■ 그럼에도 국내가치 감안하면 너무 싸다

물론 손상차손이라는 악재가 투자심리에 부정적이며, 인식할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에도 시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지금 주가는 국내가치(주당 약 43,000원, 국내 순이익에 적정 PER 10배)도 반영 못한 극심한 저평가다. 또한 지난달 제 5기 부지 선정이 마무리되며 2019년부터 매년 2천억원 수준의 설비투자가 늘어나는 것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가스공사의 국내 보장이익이 연평균 8%씩 늘어나는 전망이 확실해 지고 있다. 지난 6년 동안 증가하지 못했던 국내 보장이익이 올해를 기점으로 빠르게 늘어난다는 점에서 리레이팅은 당연하다. 또한 2018년 PBR 0.4배(ROE 6.4%)까지 낮아진 현 주가 수준을 고려해도 매수하기에 매력적이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DY (%)
2015A	26,053	1,008	319	3,594	(29.4)	2,355	10.3	13.4	0.3	3.2	0.5
2016A	21,108	918	(674)	(7,740)	NM	2,535	NM	11.9	0.5	(7.0)	-
2017F	20,523	1,065	89	1,019	NM	2,764	40.6	10.3	0.4	1.0	1.4
2018F	20,927	1,253	605	6,909	578.1	2,848	6.0	10.4	0.4	6.4	1.8
2019F	21,543	1,357	683	7,792	12.8	2,965	5.3	10.3	0.4	6.8	2.1

주: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상기 보고서는 2017년 10월 11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한국전력(015760)

매수(유지)
목표가: 54,000원(유지)
종가(10/11): 37,350원

3Q17 Preview: 안전한 매수 기회

■ 3분기 영업이익 2.9조원 전망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각각 16.0조원, 2.9조원으로 추정한다.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0.4% 늘어나는 것이나 영업이익은 33.7% 감소하는 것이다. 작년 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으로 평균 전기판매단가가 114원/kWh(-3.0% YoY)으로 낮아졌으나, 판매량은 3.0% 늘어난 130TWh에 달해 매출액은 전년동기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반면 영업비용은 13.1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3.5% 늘어나 감익은 불가피하다. 원전의 계획예방정비 기간이 계속 길어지고 있어, 3분기 원전 이용률은 73.1%(3Q16 85.3%, 2Q17 78.7%)로 낮을 전망이다. 2분기 인상된 유연탄 개별소비세(24원/kg→30원/kg)와 단가 상승으로, 연료비는 4.0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4.3%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작년 3분기가 한전 역사상 최대 분기이익을 기록한 만큼, 감익에도 올해 3분기 이익은 적정 수준으로 판단된다(이례적인 초과 수익을 거뒀던 15년과 16년을 제외하면 3분기 이익으로는 최대).

■ 아쉬운 8월 전기판매단가, 하지만 긴 연휴기간 급락한 SMP

8월 평균 전기판매단가가 전년동월대비 4.3% 낮아졌다. 전체 판매량의 15.8%을 차지한 주택용 판매단가가 20% 낮아졌기 때문이며, 작년 12월 3단계로 완화된 누진제의 영향이 크다. 8월은 주택용 판매량이 연중 가장 많은 달인만큼 누진제 완화 효과가 크게 나타났지만, 9월부터 주택용 판매단가 하락률은 예상 수준(-13% YoY, 2016년 12월부터 2017년 7월의 평균 상승률)일 전망이다. 반면 4분기 실적에 영향을 줄 10월 전력지표는 긍정적일 것이다. 9월 말부터 시작된 10일간의 긴 연휴기간 평균 SMP(계통한계가격)는 56.8원/kWh로 9월 평균 SMP인 72.6원/kWh보다 22% 낮았다. 구입전력 단가(P)가 낮아져, 한전 별도기준 1,400억원정도의 비용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다.

■ 정책 불확실성 해소 임박, 안전한 매수 기회

지난 4분기부터 예상을 하회한 실적 그리고 정책 불확실성으로, 한전 주가는 역사적 밴드 하단인 PBR 0.3배 수준에 도달했다. 하지만 신고리 5,6호기 건설진행 결정(공론화위 10월 20일 최종 권고안 제출)으로 6개월간 지속됐던 ‘탈원전’ 불확실성은 사라질 것이다. 만약 건설 중단으로 결정된다면, 주가의 단기 변동성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하나, 이미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알려졌기에 하락폭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 반면 건설이 재개된다면 주가는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다. 향후 6년 동안 5기의 신규 원전이 늘어나 2023년까지의 한전의 발전믹스는 좋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주가 기준 배당수익률이 3.5%까지 높아졌음을 감안해도 지금은 안전한 매수 기회라 판단한다.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54,000원을 유지한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DY (%)
2015A	58,958	11,347	13,289	20,701	382.5	19,688	2.4	4.3	0.5	22.1	6.2
2016A	60,190	12,002	7,049	10,980	(47.0)	20,963	4.0	3.7	0.4	10.2	4.5
2017F	59,361	7,330	3,975	6,193	(43.6)	16,908	6.0	4.1	0.3	5.4	3.5
2018F	60,778	8,319	4,598	7,162	15.6	17,963	5.2	3.7	0.3	6.0	5.4
2019F	61,324	8,657	4,930	7,679	7.2	18,323	4.9	3.4	0.3	6.2	5.4

주: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상기 보고서는 2017년 10월 11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현대제철(004020)

매수(유지)
목표가: 82,000원(유지)
종가(10/11): 52,900원

3Q17 Preview: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 3분기 연결 영업이익 3,580억원으로 컨센서스 충족할 전망

3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3,580억원(QoQ +2%, YoY +0.4%)으로 컨센서스 3,684억원과 유사할 전망이다. 주요 전방 산업인 자동차 판매가 저조해 컨센서스가 낮아졌고 이를 충족하는 실적이 예상된다. 봉형강은 비수기인 3분기에도 호조세가 이어지며 판매량이 2백만톤을 상회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자동차용강판 판매 부진으로 판재류 판매량은 3백만톤을 하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3분기는 비수기지만 중국 철강 가격 상승으로 철강 업황이 2분기보다 개선되었다. 그러나 자동차 판매 부진으로 판재류 출하가 저조해 실적이 업황에 못 미치는 형국이다.

■ 자동차용강판을 제외한 모든 강종 가격 인상

3분기에 국내 철강업계 뉴스에 가장 많이 등장한 업체는 현대제철이다. 철근, 형강, H형강, 후판, 열연, 그리고 냉연 등 자동차용강판을 제외한 모든 강종에 대해 가격을 인상했기 때문이다. 유통항 기준으로 3분기에만 철근 3만원, 형강 6만원, H형강 6만원, 후판 9만원, 열연 10만원, 그리고 냉연 가격을 10만원 인상했다. 자동차용강판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나마 3분기 실적이 전분기보다 줄지 않는 것은 위와 같은 인상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 판단한다.

■ 4분기 실적은 자동차부품 업체와 차별화되는 계기가 될 것

4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4,350억원으로 3분기 대비 21.7% 증가가 예상된다. 3분기 가격 인상이 4분기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스프레드가 상승할 것이다. 여기에 현대/기아차의 자동차 판매량이 최악의 수준에서 벗어나면서 판재류 출하량도 늘어날 전망이다. 자동차 판매량 회복에 철강 업황 호조가 더해져 실적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는 자동차 부품업체와의 주가 차별화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 글로벌 주요 철강업체 중 가장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12개월 forward BPS에 목표 PBR 0.6배를 적용한 목표주가 82,000원을 유지한다. 2017년 예상 실적 기준 PBR은 0.4배로 글로벌 주요 철강 업체 중 PBR이 가장 낮다. 자동차 부진 여파로 철강 업황 호조세를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현대/기아차 판매량이 회복해 가장 큰 악재가 개선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철강 업황 개선으로 4분기 실적이 개선될 전망이다. 자동차 업황 부진의 영향에서 벗어나 주가가 재평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DY (%)
2015A	16,133	1,464	734	5,955	(9.8)	2,738	8.4	6.8	0.4	5.1	1.5
2016A	16,692	1,445	819	6,253	5.0	2,833	9.1	6.7	0.5	5.2	1.3
2017F	18,497	1,493	923	7,030	12.4	3,375	7.7	5.3	0.4	5.6	1.4
2018F	21,364	1,707	1,073	8,174	16.3	3,600	6.6	4.7	0.4	6.1	1.4
2019F	22,432	2,045	1,281	9,762	19.4	3,976	5.5	4.1	0.4	6.9	1.4

주: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상기 보고서는 2017년 10월 11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9/28(목)	9/29(금)	10/10(화)	10/11(수)	10/12(목)	
유 가 증 권	종합주가지수	2,373.14	2,394.47	2,433.81	2,458.16	2,474.76	
	등락폭	0.57	21.33	39.34	24.35	16.60	
	등락종목	상승(상한)	515(1)	610(1)	364(0)	513(0)	452(0)
		하락(하한)	296(0)	187(0)	450(0)	281(0)	330(0)
	ADR	69.59	73.39	78.17	83.85	87.98	
	이격도	10 일	99.18	100.03	101.61	102.45	102.87
		20 일	100.10	100.92	102.36	103.10	103.46
	투자심리	30	30	30	40	50	
	거래량	(백만 주)	195	182	222	202	255
	거래대금	(십억 원)	4,713	4,539	7,508	6,086	6,223
코 스 닥	코스닥지수	648.09	652.82	654.59	662.31	666.54	
	등락폭	-1.15	4.73	1.77	7.72	4.23	
	등락종목	상승(상한)	684(1)	833(0)	416(0)	828(2)	559(2)
		하락(하한)	431(1)	325(0)	737(0)	305(0)	583(0)
	ADR	70.79	72.62	76.05	82.22	81.86	
	이격도	10 일	98.47	99.47	100.06	101.43	102.10
		20 일	98.57	99.36	99.60	100.67	101.21
	투자심리	40	40	40	50	60	
	거래량	(백만주)	583	686	554	558	552
	거래대금	(십억원)	2,825	3,121	2,832	2,980	3,416

◆주체별 당일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유 가 증 권	매수	2,593.7	1,898.5	1,550.7	659.8	102.9	152.1	112.3	14.9	508.7	91.5
	매도	2,643.3	1,662.4	1,769.1	715.7	107.0	197.2	119.6	16.6	613.0	59.6
	순매수	-49.6	236.1	-218.4	-55.9	-4.1	-45.0	-7.3	-1.7	-104.3	31.9
	10월 누계	-306.2	1,754.4	-1,314.3	-636.6	-42.7	-106.9	34.3	-25.4	-536.9	-134.0
	17년 누계	-5,815.7	6,953.0	-4,721.6	5,788.0	-1,624.7	-3,089.5	-85.5	-735.7	-4,974.2	3,584.3
코 스 닥	매수	2,990.5	269.5	147.0	62.0	12.4	19.5	29.2	2.3	21.6	21.5
	매도	2,902.7	298.4	204.5	56.9	14.4	41.0	27.0	0.9	64.3	22.9
	순매수	87.7	-28.8	-57.5	5.1	-2.0	-21.5	2.2	1.4	-42.6	-1.4
	10월 누계	47.4	63.7	-99.4	1.0	-3.9	-31.8	-2.2	1.9	-64.3	-11.7
	17년 누계	2,760.1	2,058.4	-3,543.5	-916.5	-323.7	-769.1	-478.8	-119.8	-935.7	-1,275.1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통신업	7,005	미분류 -140,904
의약품	5,266	전기전자 -27,373
유통업	3,593	서비스업 -14,144
삼성생명	5,512	KODEX 200 -58,037
삼성물산	5,240	TIGER 200 -33,230
LG이노텍	5,082	KODEX 레버리지 -20,893
KT	4,314	KBSTAR 200 -15,903
LG생활건강	3,217	SK하이닉스 -8,349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증권	19,571	화학	-29,505
기타금융업	9,209	미분류	-20,496
보험업	8,593	전기전자	-7,350
카카오	13,096	LG화학	-22,293
삼성물산	10,516	TIGER 200	-18,180
SK텔레콤	8,694	엔씨소프트	-13,438
미래에셋대우	8,233	SK하이닉스	-9,922
SK	6,457	LG디스플레이	-8,662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가스	1,593	미분류	-154,527
통신업	1,497	전기전자	-4,430
증권	1,345	비금속	-2,546
KINDEX S&P아시아TOP50	1,409	KODEX 레버리지	-128,497
한국전력	1,312	TIGER 200 IT	-6,183
KT	1,146	KODEX 200	-5,428
코리안리	1,009	KODEX 코스닥150 레버리지	-5,214
메리츠증권증권	1,002	SK하이닉스	-4,515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기타금융업	8,171	미분류	-24,712
유통업	3,833	서비스업	-11,727
증권	3,681	화학	-7,402
삼성전자	12,038	TIGER 200	-11,322
삼성물산	3,438	KBSTAR 200	-7,369
하나금융지주	2,758	SK하이닉스	-6,926
한국금융지주	2,302	LG디스플레이	-5,210
TIGER 헬스케어	2,251	POSCO	-5,096

◆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증권	36,100	전기전자 -170,072
의약품	20,945	화학 -69,024
건설업	15,837	서비스업 -34,328
삼성물산	25,276	SK하이닉스 -66,846
KB금융	19,099	삼성전자 -57,969
LG이노텍	16,036	엔씨소프트 -39,283
카카오	14,095	LG화학 -38,908
SK텔레콤	12,485	LG디스플레이 -25,097
NAVER	12,226	삼성전기 -19,756
미래에셋대우	12,084	POSCO -13,047
NH투자증권	11,020	KODEX 200선물인버스2X -11,743
KODEX 레버리지	10,316	한국전력 -11,400
삼성생명	8,625	롯데케미칼 -10,731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서비스업	68,855	통신업	-13,856
기타금융업	49,552	운수창고	-2,603
화학	37,643	철강금속	-1,440
LG전자	40,591	LG디스플레이	-44,437
삼성전자	36,363	LG이노텍	-15,262
엔씨소프트	30,351	SK텔레콤	-13,876
SK이노베이션	22,936	삼성전기	-6,387
KODEX 레버리지	16,000	기아차	-5,925
한국전력	12,173	SK하이닉스	-5,910
카카오	12,146	대림산업	-4,957
삼성물산	11,434	한화테크윈	-3,810
현대차	11,294	NHN엔터테인먼트	-3,550
한미사이언스	8,871	KB금융	-2,561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오락,문화	2,458	계약	-7,023	디지털컨텐츠	1,626	반도체	-2,656
IT부품	1,975	반도체	-6,424	도매	1,205	계약	-1,659
섬유,의류	417	도매	-6,286	오락,문화	640	기계,장비	-1,163
파라다이스	2,041	셀트리온헬스케어	-6,132	셀트리온	2,460	휴젤	-2,734
인터플렉스	2,012	메디톡스	-3,061	필어비스	1,500	애플론	-1,553
이오테크닉스	1,091	휴젤	-2,624	셀트리온헬스케어	1,193	에스에프에이	-907
유니테스트	861	서울반도체	-2,457	에스티팜	1,152	메디톡스	-777
에이티젠	649	피에스케이	-1,278	파라다이스	547	인터플렉스	-598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금융	413	IT부품	-161	반도체	2,466	계약	-5,291
오락,문화	368	반도체	-85	도매	1,637	금융	-1,791
금속	171	전문기술	-70	방송서비스	887	연구,개발	-577
메디포스트	249	엘앤에프	-223	메디포스트	1,673	휴젤	-4,266
에스엠	241	휴젤	-89	셀트리온헬스케어	1,644	메디톡스	-2,504
에이티엔인베스트	224	메디톡스	-70	이오테크닉스	1,163	제일홀딩스	-1,733
SBI인베스트먼트	215	나스미디어	-69	CJ E&M	1,013	제넥신	-577
파라다이스	128	샘코	-61	실리콘웍스	699	파크시스템스	-295

◆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오락,문화	4,256	도매	-14,268	비금속	6,539	계약	-11,049
IT부품	2,371	계약	-12,175	IT부품	3,347	도매	-7,373
인터넷	750	반도체	-10,653	방송서비스	2,609	디지털컨텐츠	-5,124
셀트리온	18,386	셀트리온헬스케어	-13,756	포스코켄텍	6,827	메디톡스	-13,477
파라다이스	4,866	휴젤	-12,816	비에이치	5,524	셀트리온헬스케어	-7,002
메디포스트	2,474	메디톡스	-9,159	휴젤	4,323	더블유게임즈	-3,268
이오테크닉스	2,390	애플론	-8,960	CJ E&M	3,814	포스코 ICT	-2,159
비에이치	2,133	제일홀딩스	-3,341	셀트리온	2,844	주성엔지니어링	-2,031
필어비스	1,486	서울반도체	-2,855	컴투스	2,650	SKC코오롱PI	-1,883
인터플렉스	1,421	신라젠	-2,471	서울반도체	2,268	원익IPS	-1,636
에스티팜	1,155	에스에프에이	-2,043	에스에프에이	2,042	GS홈쇼핑	-1,558
CJ E&M	1,114	에이치엘비	-2,040	인터플렉스	2,000	오스템임플란트	-1,510
유니테스트	930	제넥신	-1,936	테스	1,781	파트론	-1,425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수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KOSDAQ			
기 관		외 국 인		기 관		외 국 인	
동양고속	40 일	한화	19 일	에이티젠	26 일	동원개발	37 일
유화증권	36 일	LG하우시스	18 일	AP위성	23 일	씨엠에스에듀	17 일
SBS미디어홀딩스	29 일	KCC	18 일	투비소프트	23 일	신한제3호스팩	16 일
KISCO홀딩스	24 일	하이트진로	17 일	씨큐브	22 일	경동제약	14 일
S&T홀딩스	22 일	현대에이치씨엔	14 일	삼진엘앤디	21 일	제넥신	11 일
현대코퍼레이션홀딩스	19 일	현대차	13 일	금강철강	19 일	엔지스테크놀러지	10 일
부국증권	19 일	쿠쿠전자	12 일	폭스브레인	18 일	툭택	10 일
애경유화	17 일	현대엘리베이	10 일	씨노텍	15 일	유니테크노	9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수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KOSDAQ			
기 관		외 국 인		기 관		외 국 인	
KODEX 레버리지	147,914	삼성전자	357,819	파라다이스	27,546	셀트리온	32,146
삼성물산	72,520	현대중공업	272,742	주성엔지니어링	13,375	포스코켄텍	18,576
LG이노텍	44,548	현대차	178,475	펄어비스	7,654	휴젤	17,132
한미약품	41,778	LG전자	77,803	SK머티리얼즈	7,510	비에이치	16,961
카카오	38,679	LG화학	68,561	신라젠	6,614	CJ E&M	14,730
삼성바이오로직스	29,650	SK이노베이션	58,076	GS홈쇼핑	6,266	셀트리온헬스케어	13,809
한국콜마	19,704	LG	52,494	에이티젠	5,864	에스에프에이	12,413
SK텔레콤	19,638	고려아연	47,212	이오테크닉스	5,571	서울반도체	11,030

◆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종 목	KOSPI			KOSDAQ			
	기 관	외 국 인	합 계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증권	36,100	20,648	56,748	IT부품	2,371	3,347	5,717
의약품	20,945	15,601	36,546	방송서비스	22	2,609	2,630
유통업	15,450	16,780	32,229	인터넷	750	903	1,653
삼성물산	25,276	11,434	36,710	셀트리온	18,386	2,844	21,230
KODEX 레버리지	10,316	16,000	26,316	비에이치	2,133	5,524	7,657
카카오	14,095	12,146	26,241	CJ E&M	1,114	3,814	4,928
미래에셋대우	12,084	5,172	17,256	인터플렉스	1,421	2,000	3,421
NH투자증권	11,020	5,964	16,984	컴투스	162	2,650	2,811
삼성생명	8,625	6,122	14,747	사람인에이치알	752	849	1,601
NAVER	12,226	1,502	13,728	에코프로	169	1,288	1,457
한미약품	5,898	7,668	13,566	유니테스트	930	182	1,112
현대건설	5,587	6,743	12,330	툭택	56	850	906
삼성증권	6,207	5,337	11,544	미래컴퍼니	39	817	856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도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대상	22 일	진양화학	34 일
삼양홀딩스	22 일	KPX그린케미칼	29 일
KT	21 일	방림	17 일
현대에이치씨엔	16 일	화승엔터프라이즈	13 일
선도전기	15 일	현대비앤지스틸	13 일
KR모터스	15 일	미원화학	12 일
유진투자증권	14 일	GS글로벌	12 일
LG하우시스	13 일	플무원	11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한양이엔지	18 일	레드캡투어	29 일
태웅	16 일	원일특강	24 일
텔레칩스	13 일	뉴트리바이오텍	23 일
케이피엠테크	10 일	모아텍	19 일
경동제약	10 일	삼일	19 일
제일홀딩스	10 일	코메론	17 일
엔브이에이치코리아	9 일	동일금속	16 일
모아텍	9 일	한일화학	16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도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삼성전자	-473,271	LG디스플레이	-51,672
LG화학	-122,918	SK하이닉스	-50,297
SK하이닉스	-108,784	한국전력	-31,050
엔씨소프트	-96,961	아모레퍼시픽	-25,780
LG디스플레이	-80,782	삼성전기	-20,839
롯데케미칼	-46,866	현대위아	-20,076
LG	-45,719	LG이노텍	-18,492
POSCO	-42,910	대한유화	-13,083

KOSDAQ			
기	관	외	국 인
셀트리온	-68,909	메디톡스	-13,929
휴젤	-32,957	주성엔지니어링	-7,401
셀트리온헬스케어	-29,411	더블유게임즈	-7,054
메디톡스	-25,636	시노펙스	-6,571
제일홀딩스	-11,277	GS홈쇼핑	-6,282
애플론	-8,953	게임빌	-5,883
포스코캡텍	-7,388	포스코 ICT	-4,579
에스엔피월드	-7,319	메디포스트	-4,502

◆ 기관/외인 동반 순매도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종	KOSPI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전기전자		-170,072	11,410			-158,662	
화학		-69,024		37,643		-31,381	
철강금속		-15,571		-1,440		-17,010	
SK하이닉스		-66,846		-5,910		-72,756	
LG디스플레이		-25,097		-44,437		-69,534	
삼성전기		-19,756		-6,387		-26,143	
POSCO		-13,047		-1,622		-14,669	
KODEX 200선물인버스2X		-11,743		-827		-12,570	
기아차		-2,365		-5,925		-8,290	
KODEX 인버스		-5,610		-2,258		-7,868	
KT		-7,144		0		-7,144	
한화테크윈		-2,069		-3,810		-5,879	
NHN엔터테인먼트		-1,622		-3,550		-5,172	

종	KOSDAQ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제약		-12,175		-11,049		-23,225	
도매		-14,268		-7,373		-21,641	
반도체		-10,653		-605		-11,258	
메디톡스		-9,159		-13,477		-22,636	
셀트리온헬스케어		-13,756		-7,002		-20,757	
주성엔지니어링		-1,744		-2,031		-3,775	
더블유게임즈		-91		-3,268		-3,359	
포스코 ICT		-774		-2,159		-2,933	
에이치엘비		-2,040		-379		-2,420	
오스템임플란트		-755		-1,510		-2,265	
동진썬미켐		-810		-1,223		-2,034	
원익IPS		-209		-1,636		-1,845	
웹젠		-1,530		-192		-1,722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SK하이닉스	348	30,923
삼성전자	7	19,868
LG전자	174	14,852
현대차	85	13,092
LG화학	33	12,684
카카오	79	11,927
아모레퍼시픽	38	9,894
엔씨소프트	21	9,116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헬스케어	147	8,792
셀트리온	49	7,189
포스코캠텍	202	6,400
파라다이스	203	3,084
에코프로	72	2,406
에스에프에이	34	1,404
로엔	15	1,357
신라젠	27	1,239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 대차잔고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3,659	9,996,626
SK하이닉스	39,596	3,528,040
LG디스플레이	47,598	1,439,846
삼성바이오로직스	3,735	1,297,791
카카오	7,623	1,147,208
현대차	6,755	1,046,969
엔씨소프트	2,318	1,036,276
KB금융	17,658	1,018,870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25,959	3,790,029
신라젠	7,243	340,433
바이로메드	2,486	302,069
파라다이스	16,212	257,774
로엔	2,494	231,932
셀트리온헬스케어	3,613	214,625
코미팜	4,110	145,501
SK머티리얼즈	674	119,901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 대차잔고 5일간 누적 순증/감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천주)

KOSPI			
순 증		순 감	
보험업	10,685	종이목재	-14,919
전기전자	3,364	운수장비	-3,240
음식료	959	기타금융업	-3,028
한화손해보험	6,696	페이퍼코리아	-15,026
한화생명	4,421	삼성중공업	-3,567
팬오션	2,844	맥쿼리인프라	-2,403
LG디스플레이	2,264	흥아해운	-1,590
금호타이어	1,302	SK증권	-1,322
오리온홀딩스	1,220	대우건설	-1,307
KR모터스	1,043	두산인프라코어	-1,266
두산중공업	798	LG유플러스	-1,231
한화케미칼	796	영진약품	-1,140
KEC	672	삼성엔지니어링	-1,093

KOSDAQ			
순 증		순 감	
종이, 목재	1,106	반도체	-2,758
음식료, 담배	871	의료, 정밀기기	-2,109
종합건설	854	기계, 장비	-1,338
국일제지	1,125	루트로닉	-1,188
하림	1,071	이화전기	-965
KD건설	912	톱텍	-730
셀트리온헬스케어	767	피제이메탈	-647
포스코 ICT	635	세종텔레콤	-603
SBI인베스트먼트	628	포스코캠텍	-581
알비케이이엠디	460	유니크	-573
우리기술투자	416	덕산네오룩스	-382
셀트리온	331	주성엔지니어링	-369
서부T&D	320	피에스텍	-356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거래 주체별 매매 동향

(단위: 십억)

구 분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9/28(목)	9/29(금)	10/10(화)	10/11(수)	10/12(목)
외국인	6,953.0	1,754.4	1,656.3	-129.1	30.8	817.7	700.7	236.1
기관계	-4,721.6	-1,314.3	-1,295.0	-49.5	59.3	-561.9	-533.9	-218.4
(투신)	-3,089.5	-106.9	-0.6	37.0	59.8	-35.1	-26.8	-45.0
(연기금)	2,397.9	142.8	222.6	41.5	38.3	91.0	31.2	20.5
(은행)	-735.7	-25.4	-28.6	-1.5	-1.7	-8.7	-15.0	-1.7
(보험)	-1,624.7	-42.7	-49.0	4.0	-10.3	-29.5	-9.0	-4.1
개인	-5,815.7	-306.2	-344.0	118.9	-147.0	-310.4	53.8	-49.6
기타	3,584.3	-134.0	-17.3	59.8	57.0	54.6	-220.5	31.9

주: KOSDAQ 제외

◆ 증시 자금 동향

(단위: p, 십억원, %)

구 분	2015	2016	2017	9/27(수)	9/28(목)	9/29(금)	10/10(화)	10/11(수)
KOSPI	1,961.3	2,026.5	2,458.2	2,372.6	2,373.1	2,394.5	2,433.8	2,458.2
고객예탁금	22,695.6	22,754.4	24,107.4	24,487.9	24,355.4	23,139.8	23,979.9	24,107.4
(증감액)	6,853.1	58.8	1,353.0	-315.2	-132.5	-1,215.6	840.1	127.5
(회전율)	28.8	24.8	37.6	31.2	30.9	33.8	43.1	37.6
실질예탁금증감	7,687.7	-3,211.2	-1,368.6	-273.6	-300.4	-1,024.2	986.0	39.4
신용잔고(KOSPI)	3,035.6	2,929.1	3,984.8	4,057.7	4,025.0	4,019.0	4,025.0	3,984.8
신용잔고(KOSDAQ)	3,491.2	3,848.7	4,257.4	4,352.7	4,302.4	4,292.6	4,280.9	4,257.4
미수금	151.0	125.6	90.7	147.2	133.2	107.9	102.9	90.7

주1: 실질예탁금 증감=고객예탁금증분+개인순매수-(신용증분+미수금 증분) / 고객 예탁금 회전율=(KOSPI, KOSDAQ 거래대금/고객예탁금)*100
 주2: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KOSCOM

◆ 국내 수익증권 유출입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설정 잔액	연간 누계	월간 누계	9/26(화)	9/27(수)	9/28(목)	9/29(금)	10/10(화)
전체주식형	72,019	-3,740	1,351	101	-109	494	316	-41
(ex.ETF)		-5,060	228	32	30	33	88	3
국내주식형	54,270	-3,749	989	87	-128	456	256	-53
(ex.ETF)		-5,053	-134	18	10	-4	29	-9
해외주식형	17,749	9	362	14	20	38	59	12
(ex.ETF)		-7	362	14	20	38	59	12
주식혼합형	9,068	1,028	156	16	20	13	18	4
채권혼합형	20,454	-5,888	-558	-28	-10	131	-40	-6
채권형	104,743	2,183	17	-9	34	-279	223	-241
MMF	106,328	-1,692	-18,705	-1,159	-614	-2,356	-2,839	-717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금융투자협회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주요 이머징마켓 외국인 매매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국가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10/6(금)	10/9(월)	10/10(화)	10/11(수)	10/12(목)
한국	6,020	1,555	1,555	-	-	721	618	215
대만	6,933	651	618	100	-	-	315	203
인도	4,982	-525	-275	-146	-67	-62	-	-
인도네시아	-1,203	-392	-203	-90	-20	-34	-59	-
태국	477	197	156	17	21	70	48	-
남아공	-5,279	283	225	47	65	2	111	-
필리핀	1,018	-48	-20	0	-5	10	-25	-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주요 금리,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단위: %, 원, 엔, p, 달러)

구분	2016년말	9/28(목)	9/29(금)	10/10(화)	10/11(수)	10/12(목)
회사채 (AA-)	2.14	2.43	2.43	2.48	2.47	2.44
회사채 (BBB-)	8.27	8.67	8.67	8.72	8.72	8.69
국고채 (3년)	1.64	1.89	1.89	1.94	1.93	1.90
국고채 (5년)	1.80	2.09	2.09	2.14	2.14	2.11
국고채 (10년)	2.08	2.39	2.38	2.42	2.42	2.39
미 국채 (10년)	2.56	2.31	2.36	2.36	2.35	-
일 국채 (10년)	0.06	0.07	0.06	0.06	0.07	-
원/달러	1,210.50	1,149.10	1,145.40	1,135.10	1,135.20	1,133.20
원/100엔	1,030.04	1,018.97	1,018.40	1,013.03	1,011.32	1,009.54
엔/달러	117.52	112.77	112.47	112.05	112.25	112.25
달러/유로	1.05	1.17	1.18	1.18	1.18	1.18
DDR3 1Gb (1333MHz)	1.15	1.24	1.24	1.24	1.24	-
DDR3 2Gb (1333MHz)	1.50	1.65	1.69	1.69	1.69	-
NAND Flash 16Gb (MLC)	1.87	3.01	2.98	2.98	2.96	-
CRB 지수	193.97	185.33	183.33	185.60	185.91	-
LME 지수	2,663.2	3,139.7	3,124.7	3,238.6	-	-
BDI	961	1,391	1,356	1,418	-	-
유가 (WTI, 달러/배럴)	53.90	51.56	49.58	50.92	51.30	-
금 (달러/온스)	1,131.35	1,283.35	1,278.75	1,291.40	1,289.25	-

자료: Bloomberg, KOSCOM, 한국투자증권

한 눈에 보는 증시 일정

월	화	수	목	금
2	3	4	5	6
韓> 9월 수출 YoY(1일) (35.0%, 25.0%, 17.4%) 美> 9월 마켓 제조업 PMI (53.1, 53.0, 53.0) 8월 건설지출 MoM (0.5%, 0.4%, -1.2%) 유럽> 9월 마켓 유로존 제조업 PMI (58.1, 58.2, 58.2) 日> 3Q 단칸 대형 제조업 지수 (22, 18, 17) 3Q 대형 전체 산업 Capex (7.7%, 8.3%, 8.0%) 9월 닷케이 PMI 제조업 (52.9, n/a, 52.6)		美> 연준 옐런 연설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0.4%, n/a, -0.5%)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260, 265, 272) 8월 무역수지(십억달러) (-42.4, -42.7, -43.6) 8월 제조업수주 (1.2%, 1.0%, -3.3%) 8월 내구재주문 (2.0%, 1.7%, 1.7%)	美> 9월 비농업고용자수 변동(천명) (-33, 80, 156) 9월 실업률 (4.2%, 4.4%, 4.4%) 8월 도매재고 MoM (1.0%, 0.9%, 1.0%)
9	10	11	12	13
	韓> 북한 노동당 창건일 日> 8월 BoP 경상수지(십억엔) (2380, 2223, 2320)	美> FOMC 회의록 공개 10월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2.1%, n/a, -0.4%) 日> 8월 핵심기계수주 MoM (3.4%, 1.0%, 8.0%)	韓> 읍선만기일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n/a, 250, 260) 9월 PPI MoM (n/a, 0.4%, 0.2%) 日> 9월 PPI YoY (3.0%, 3.0%, 2.9%) 8월 3차 산업지수 MoM (-0.2%, 0.1%, 0.1%)	韓> 삼성전자 3Q 잠정실적 美> 9월 CPI MoM (n/a, 0.6%, 0.4%) 10월 미시간대학교 소비자신뢰 (n/a, 95.0, 95.1) 9월 소매판매 MoM (n/a, 1.6%, -0.2%)
16	17	18	19	20
日> 8월 광공업생산 MoM (n/a, n/a, 2.1%) 中> 9월 CPI YoY (n/a, 1.6%, 1.8%) 9월 PPI YoY (n/a, 6.5%, 6.3%)	美> 9월 광공업생산 (n/a, 0.0%, -0.9%) 유럽> 9월 CPI YoY (n/a, n/a, 1.5%) 10월 ZEW 서베이 예상 (n/a, n/a, 31.7)	韓> 9월 실업률 SA (n/a, n/a, 3.8%) 美> 베이지북 공개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n/a, n/a, -2.1%) 9월 주택차공건수(천건) (n/a, 1190, 1180) 中> 19차 당대회	韓> 금융통화위원회 (n/a, n/a, 1.25%)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n/a, n/a, n/a) 9월 선행지수 (n/a, 0.1%, 0.4%) 中> 3Q GDP YoY (n/a, 6.8%, 6.9%) 日> 8월 전체산업 활동지수 MoM (n/a, n/a, -0.1%)	美> 연준 옐런 연설 9월 기존주택매매(백만건) (n/a, 5.32, 5.35) 유럽> EU 정상회담

☞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 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입)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기업 공시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표시는 한국시간 당일 아침)